

내 아이 사려심 깊은 불자로 키우기

e 해외불교칼럼

불교는 모든 것을 감싸는 포용,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긍정을 가르친다. 그럼 내 아이에게 포용과 긍정적 자세를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내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탐구하고 바르게 정진해야 한다. 우선 내가 화날 때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아이가 함께 화날 경우에는 열린 대화를 통해 매듭을 풀아가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부모로서 섬기고 받들만한 사람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잠된 존경심을 지닌다. 따라서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강압적 교육방식은 아이에게 혼란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또한 나는 화가 난다고 아이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올바른 말을 쓰라고 한다. 권위를 지녀야 할 부모가 되지 못하는 물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경만한 인격적임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모든 아이는 태생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지니고 있어 부모가 참선을 수행하면 이를 골짜기 따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는 아이의 심성을 순화할 수 있으며, 이렇듯 고요하게 정리된 심성은 아이가 어떤 삶의 역경도 헤쳐 나가도록 돕는다.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그러나 아이들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주변에서 생겨나는 사물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윽고 아이가 불교



자녀의 교육에는 모범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불교를 가르칠 때도 부모가 먼저 바른 정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진은 중립학교의 수업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에 눈을 돌리게 되면, 이제 불법을 배워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여기서 아이는 다시 부모가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이때 부모는 아이가 친근감을 느끼는 불교우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아이가 더욱 흥미를 보이거나 중간에서 포기하려 할 때, 부모는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절을 해가야 한다.

대체로 아이들은 최초의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다가 뭔가 좀 알게 된듯하면 대문 고개를 돌린다. 초기의 호기심이 충족된 결과 속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른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서둘러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도는 먼저 배운 것을 충분히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

일 부모가 아이를 먼저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놓고 간다면, 이는 아이가 그 주제로부터 영영 떠나게 하는 것인바, 득보다 실이 클 뿐이다. 먼저 부모 자신이 마음을 가지런히 한 다음, 아이에게 불법과 삶의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서둘러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도는 먼저 배운 것을 충분히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

필자 **재닛 스티리**-독학으로 불교에 개종입문, 두 명의 친자와 두 명의 양자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만학도로 대학에서 전문의사소통학을 전공. 미국 여성종합전문지인 <여성의 목소리>의 벨라온라인의 불교담양편집자로 기독교교정의 성폭력과 남편들의 횡포를 주제로 <여인이여 순종하라: 기독교와 가정폭력> 등 저술출판
출처: 벨라온라인 / 편역: 성휴 스님

월드 불심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필드 곳곳서 '무상'의 가르침 전파

타이거 우즈는 미국의 이른바 소수민족들에게 큰 희망의 등불이다. '타이거 쇼크'에서 좀 벗어나자 그의 생애분석 작업이 시작됐다.

그를 마치 외계인처럼 다른 열광진 소리들은 걸러내고, 다소 객관적인 글을 하나 보자. 출기세포 소동으로 우리 귀에 익은 <사이언스>지의 편집장 로버트 라이트님이 꽤 오래 전 슬레이트지에 올린 기사다. 그는 진화심리학 전문가며 펜실베이니아 대학 객원교수이자 저명언론인이다.

'타이거, 다른 혹성에서 온 형제, 이제 털어 놓으시지, 그대 삶의 비밀이 뭔가?' 그는 어제 PGA 토너먼트에서 우승함으로써 골프를 하는 중생들과의 거리를 또 엄청 벌려 놨다. 최고 중 최고란 책 니를로스도 그처럼 못했다고 실토했다. 그대의 진짜 비밀은 뭔가? 만일 그럴 줄을 감춘다면, 이는 신유국집단OPEC이 석유생산을 전면중단하듯 회귀자신을 자기만 싸움이, 아니, 그보다 더 못된 것이다. 석유야 석유일 뿐이지만, 우즈 그대가 움켜쥔 건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이 아닌가? 게다가 그는 타이거 우즈의 정신신리 상태에 대해 거의 신비적인 호기심을 보인다.

'그는 얼마 전 저지른 실수는 아랑곳 않고, 여전히 평온한 미소로 필드에 들어선다. 사람으로서 어찌 그게 가능할까?' 이 글쟁이님은 글은 맛깔나게 잘 쓰는데 미국 꼬맹이들을 위한 이런 불교만화는 미처 못 봤다. 누군가 붓다에게 물었다.

"세존의 제자들은 어이해서 모두 늘 평온한지요?" 붓다가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돌이키지 못할 과거에 아니 머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아니 걱정하오. 다만 지금 여

에 들어선다. 사람으로서 어찌 그게 가능할까?' 이 글쟁이님은 글은 맛깔나게 잘 쓰는데 미국 꼬맹이들을 위한 이런 불교만화는 미처 못 봤다. 누군가 붓다에게 물었다.

"세존의 제자들은 어이해서 모두 늘 평온한지요?" 붓다가 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돌이키지 못할 과거에 아니 머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아니 걱정하오. 다만 지금 여

기에 열심일 따름이지요." 타이거 우즈는 세계 곳곳의 골프 코스를 누비며 무명 중생들에게 무상을 가르친다. 그런데 무상만치 잘못 알려진 불교용어도 드문 듯하다.

흔히 허무, 애통, 비탄의 감정언어로 와전된 '無常'이란 본디 그대로 인 건 없다. 즉 모든 건 늘 변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상의 참 뜻을 바로 새길진대 타이거 우즈처럼 흔들릴 일이 없고 일회일비할 까닭도 없다.

오늘 참담한 패자(敗者)가 내일 당당한 패자(覇者)로 바뀌는바 또한 무

의 배려가 아닐까? 특히 라이트님은 '우즈는 라이벌에게 적개심을 노출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절대중요과제를 놓치고 있다'고 농쳤다.

이는 지독한 역설이자 최대찬사다. 스포츠 상대방을 필살의 적으로 보는 검투사시 경기관행에 일침을 가한 동시에, 타이거 우즈의 명경지수(明鏡止水) 같은 불심과 인품을 극찬한 것이다. 글을 능글능글 잘 쓰는 이 글쟁이님의 마무리 또한 깔끔 상쾌하다. '골프의 열쇠는 집중, 인생의 열쇠도 집중, 타이거 우즈는 그 두 열쇠를 다 쥐고 있다.' 성휴 스님

상이다. 따라서 불자 스포츠맨은 경기가 좀 잘 풀리다고 툭씩 둘러앉아 두 손을 움켜쥐고 부처님께 이 영광을 바친다는 따위의 촌스런 쇼를 벌이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처럼 싱긋 웃으며 걸러리한테 가법계 인사를 드릴 뿐이다. 또한 그것은 승자가 보여주는 패자에 대한 기본예의이자, 의기소침한 그의 가족과 팬들에 대한 최소

사이언스紙 편집장 타이거우즈 인품·불심 극찬 불자 스포츠맨으로서 패자에 대한 배려심 발휘

한 배려가 아닐까? 특히 라이트님은 '우즈는 라이벌에게 적개심을 노출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절대중요과제를 놓치고 있다'고 농쳤다.

이는 지독한 역설이자 최대찬사다. 스포츠 상대방을 필살의 적으로 보는 검투사시 경기관행에 일침을 가한 동시에, 타이거 우즈의 명경지수(明鏡止水) 같은 불심과 인품을 극찬한 것이다. 글을 능글능글 잘 쓰는 이 글쟁이님의 마무리 또한 깔끔 상쾌하다. '골프의 열쇠는 집중, 인생의 열쇠도 집중, 타이거 우즈는 그 두 열쇠를 다 쥐고 있다.' 성휴 스님



Bad news for you! -나쁜 소식이에요 God bless you! -신의 가호를!

A pilot flying three people in a private plane—a Buddhist monk, and Bill Gates and a hippie—suddenly announced, "Bad news for you! The plane is gonna crash and we must bail out. Unfortunately, we have only three parachutes. As a terrific pilot, I see no reason to die and will take one of them. Good luck!" And he jumped out of the plane. Bill Gates smirked, "You know I am the smartest man in the world, so I deserve a parachute. God bless you!" And he leapt out, too. Now the monk told the hippie: "I've lived long enough, and you will take the last one." "Relax, man," giggled the hippie, putting it on to the monk's back. "The smartest man in the world just strapped himself into my backpack and hurried down."

스님, 빌게이츠, 히피, 셋을 태운 개인비행기의 조종사가 툭 내뱉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방 비행기가 추락하므로 탈출할건데 낙하산이 세 개뿐이라 이를 어떻게 할까? 난 끝내주는 조종사라 죽을 이유가 없으니 하나 챙기겠습니다. 그럼 잘들 해보쇼."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빌 게이츠가 실실 웃었다. "아시다시피 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인물이지도 하나 걸질게요. 신의 가호를!" 그러곤 팔짝 뛰어내렸다. 이제 스님이 히피한테 말했다. "난 오래 살았으니 마지막 건 택이 쓰시오." 히피가 그걸 스님한테 메어주며 킁킁했다. "신경 딱 끄셔,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방금 내 배낭을 짊어지게 걸치고 뛰어내렸다고요." 변안성휴 스님

미국 스님, 불교와 음식 DVD 출시

샌프란시스코 선원과 케말벨리의 테서재러 산 중선원에서 참선과 미국형 불교 선식을 지도하며 좌선수행법 및 <테서재러식 빵 만들기>와 <그린즈 요리책>을 출간한 에드워드 브라운 스님이 수년간 준비 끝에 직접 제작 출연한 다큐멘터리 '내 삶을 어찌 요리할까?'가 지난 11월 11일 11월 11일, 독일어 더빙의 DVD로 출시됐다.

음식조리는 심신건강을 위한 영양공급이란 의미를 뛰어넘어 모든 감각들의 향연이자 사랑과 모인 과 나눔의 행위라는 평소지론을 영상화한 이 작품에서 브라운 스님은 불교와 섭생, 참선에 관한 풍부한 유머, 감동적인 일화들을 곁들여가며 지구정성을 다해 요리한 삶이 곧 니르바나임을 환기시킨다.

주방활동이 최상의 영적행위임을 강조한 브라운 스님은 서구식 호화관 식단과 음식을 남비가 심신과 환경에 끼치는 폐단에 대해서도 경고, 생

활불교의 다원적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이 작품을 작업한 여류극작가 겸 감독인 독일 출신의 도리스 달소도 선불교도반이며 '독도를 보강해 드려요'란 코미디 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리기도 있다.

출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美 세익스피어문인동우회 불교 세미나

뉴욕 세익스피어문인동우회는 11월 15일 프레도니아 장로교회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불교의 매력'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연사로 나선 위틀드 워치 여사는 불교는 존재의 기원을 명확히 밝히며 불법은 확고한 도덕적 목표를 지향함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는 고정영속성을 부인하고 긍정적 행동양식을 추구하는 생활철학이자, 또한 인종, 국적, 성별을 초월한 신앙체계라 덧붙였다.

출처: 옵서버 투데이

중국 최초 이탈리아인 수계식 개최

11월 17일 중국 난징시에서 중국 최초로 이탈리아인이 정식수계를 했다. 로마대학 홍보학과 석사출신으로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5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28세의 루카스의 사발 수계식은 당초 초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한 현장(玄奘)법사의 족적이 역역한 현장사에서 하객과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거행됐다.

루카스 스님에 앞서 1925년 미얀마에서 수계, 포교활동 중 현지에서 입적한 토키나타 스님은 현 이탈리아불교연맹인 우니오네 부디스따 이탈리아니(UBI)의 큰 초석이 됐다.

지난 일 년 동안 루카스를 관찰 지도한 취엔전은 사스님은 16세기 마테오리치 신부가 가톨릭을 중국에 처음 들여왔던 이제 그가 로마에 불법을 펼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처: 차이나 데일리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덕주당 지운큰스님 취임법회

전 승정원장 덕주 큰스님이 승정원장직을 사임하신 후 공석이었던 승정원장 및 부승정원장직을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추대하기로 결의하여 취임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뜻 깊은 자리에 수회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승정원장 : 덕주당 지운 선사
승정부원장 : 덕담당 심월 선사, 덕룡당 법공 선사

일시 : 불기 2551년 12월 18일(음 11월 9일) 낮 12시
장소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도선사) 큰법당
문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덕우
집행위원장 감찰원장 덕성